

전남 노령화지수 102%... 사상 첫 노인인구, 유소년인구 초과

노령인구 비율 전국 최고인 전남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를 초과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올해 노령화지수가 101.9%로 지난해 95.4%보다 무려 6.5%p 높아졌다. 이는 전국 평균인 50.9%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전남의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령화지수란 유소년(0~14세)

0~14세 < 65세 이상

에 대한 노년(65세 이상)의 인구비율로 사회의 고령화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노령화지수가 100%면 유소년 1명에 노인 1명이 분포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의 노령화지수 101.9%는 유소년 인구 100명에 노인 인구가 101.9명이라는 의미로,

전남지역 노령화지수가 100%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에 이어 경북(86.3%), 충남(79.7%), 전북(77.7%), 강원(74.2%) 등의 순으로 노령화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전남 지역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전남지

역의 노령화속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노령화지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경제적 토대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 4천849만7천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9.5%(459만7천명)에 달했다. 시·도별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남이 17.7%로 가장 높았고, 경북(14.4%), 충남(14.2%), 전북(14.2%), 강원(12.9%) 등의 순이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황금연휴로 분산... 귀성길 '원활'

도공 "귀경, 8일 오후 피하세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이번 추석의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일까지 무려 9일 동안이 추

석 연휴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추석절 보다 넉넉하고 차분한 귀향길이 되고 있다.

주말이자 휴일인 30일과 1일 터미널과 기차역, 공항 등에는 서둘러 고향을 찾은 몇몇 귀성객만이 눈에 띌 뿐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지 않은 까닭에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에서 광주·전남 방면 등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는 일부 정체 구간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구간에서 원활한 소통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월요일인 2일 정상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아 귀성 차량들이 분산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귀성 정체는 2일 오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긴 연휴로 인해 귀성 정체는 예년에 비해 훨씬 덜 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전남지역 백화점과 할인점, 재래시장 주변도 예년과 달리 큰 혼잡이 보이지 않는 등 길어진 연휴로 인해 전반적으로 여유있는 추석절 모습이 연출됐다.

이번 추석연휴 호남지역 귀성차량은 오는 5일 오후를, 귀경 차량은 연휴 마지막날인 8일 오후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 측은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은 ▲4일 오후부터 5일 오후에 가장 많이 몰리고 ▲귀경객은 6일 오후부터 8일 오후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추석 차량 호남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약 268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귀성·귀경길 시간은 광주~서울 7시간 정도(버스전용노선 이용시 5시간 20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목포 구간은 귀성·귀경길 모두 8시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 관계자는 "빠른 귀성을 위해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타면 두 시간 가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서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목포·해남 방면 등 전남 서남부지역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은 광산 나들목으로 빠져나가는 길 이외에 동림 나들목·빛고을로~무진로로 운행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선물 한아름

어느 해보다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차분한 귀성이 이뤄지고 있다.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선물 보따리를 한아름 안은 귀성객들이 1일 광주시 광천동 터미널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

“추석 호남民心 잡아라”

여야, 재보선·정계개편 앞두고 민생탐방·정책홍보 총력전

정치권이 그 어느 해보다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지역민심 잡기 경쟁에 돌입했다. 10·25 재·보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가위 민족대이동'에 따른 여론 형성이 향후 정국 구도와 정치권 새판짜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개혁세력 통합론의 진원지인 '호남 민심'의 향방이 대선과 정계개편의 흐름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점쳐지면서 각 당은 지역 민심읽기와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까이는 10·25 재·보선 결과가 호남 민심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후보 공천과 필승 전략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등 쓸쓸한 '민심의 벽'을 실감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형성된 민심이 향후 정국의 판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각 지역에서 청취된 여론을 추후 정책에 적극 반영한

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이후 각종 호남 배려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대타협을 바탕으로 한 뉴딜과 개혁의 진정성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당 김재권 위원장은 1일 '대 시민 한가위 인사'를 통해 뉴딜 정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통과,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내년 지역에 산 증액, 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계획) 추진 등을 집중 홍보하면서 여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전남도당도 당의 주요 정책 홍보물 2만부를 당원들에게 발송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목포에서 당 소속 군수들과 10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부권 당원간담회'를 열어 정계 개편과 10·25 재·보선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민주당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민주당 역할론'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정계개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을 실현하고 정

권을 창출해 내겠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전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기 정계개편론'을 확산시켜 열린우리당의 힘을 빼는 한편 10·25 전남 재·보궐선거에서 전승, 호남 민심의 주도권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한화갑 대표는 2일 오후 3시 목포 시 해안동 최영수 신안군수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뒤, 군의원 및 원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목포 여객터미널, 북항 등을 찾아 추석 민심을 수렴하는 등 '민생 투어'에 나선다.

한나라당은 추석 연휴기간 참여정부 경제 정책 등 실정을 집중 거론해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여론의 정계개편 움직임과 관련, 우파 연대 등에 대한 지역여론을 가늠해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휘발유·경유값 상승 전남 '최고'

작년말비 3.6%·11.3% ↑

전남지역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1일 전남지역의 무연 휘발유 판매 가격이 0.1당 1천475.03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1.07원(3.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1천476.13원으로 45.61원(3.2%), 대구는 1천499.47원으로 45.42원(3.1%)이 각각 올랐다. 광주시는 26.22원(1.8%)이 올라 7번째로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인천(-12.96원), 제주(-8.45원), 서울(-8.27원), 경기(-5.63원) 등 4개 지역은 지난해 말보다 휘발유 가격이 내렸다.

정유값 인상폭도 전남이 124.49원(11.3%)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북 120.44원(10.8%), 대구 119.16원(10.5%), 충남 114.68원(10.3%), 충북 110.60원(9.9%), 광주 108.09원(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와 경유값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정유 공장과의 거리, 주유소 분포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휘발유와 경유 소매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

패트리어트 내년 도입

국방부, 2008년 실전배치

한국이 내년부터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 이르면 2008년경 패트리어트 1개대대를 실전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한국의 요청에 따라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조사인 레이손사가 한국에 15억달러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판매하기로 했다는 한국 안보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

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내년에 독일로부터 중고 패트리어트 발사대를 들여오기 위해 이미 내년 예산안에 100여억원을 반영,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국회 국방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런 가운데 레이손사로부터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관련 장비를 구매기로 확정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시 관련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www.kgc.or.kr

세계인의 건강을 위한 대한민국 명품 정관장 홍삼

국내를 돌면 세계 각국에 수출되는 정관장 그 효능과 명성은 이미 세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관장이 '특별한 신물을 드립니다' **정관장 인가위 사은인식** 2006. 9.11~10.5 20만원당 정관장 삼품권 1만원 증정 (발사권은 정관장 본가번호로 예약신청 필수)